

# 식민도시 경성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- 1910년 식민지화 한성->경성京城(게이조)
- 경성역(1925), 경성부청(1926), 조선총독부 신청사(1926) 등 식민지 수도의 랜드마크 건물 건립
- 양관 건축 양식의 변화: 적벽돌 건축 or 고딕/르네상스 양식 -> 1923년 관동대지진 후 장식성을 배제한 기능주의 모더니즘 건축















(23) Honmachi-ichome, Keijo.

口入目丁一町本城京 (所名詳圖)



通町本城京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- 일본인 이주자의 확대와 식민도시Colonial city(부산, 원산, 인천, 목포, 군산, 신의주+경성, 평양, 대구 등)
- 이중도시-주거지 공간의 분할 현상. 인종, 위생 격리.
- 식민지 지배집단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연출(건축물, 도시계획, 의례 이벤트)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- 구미 제국주의국가의 식민지와 일본 비교
  - 일본인 인구 비율이 높음. 13~28%
  - 구미인은 도시에 이주, 일본인은 농촌거주자도 많음(일본인 지주 농장)
  - 구미인은 군인과 관리 위주. 일본인은 상공업자 및 가족 비율 높음
  - 일본은 영구 정착형 식민지 이주 형태(지리적 근접성, 문화적 인종적 유사성.ex일선동조론 강조)

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Ex) 일본의 식민도시들-홋카이도 삿포로(토착 아이누족), 타이완의 타이페이, 만주의 신경=장춘, 조선의 경성 비교

- 5백년 왕조의 수도 한성(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의 역사적 전통 보유)의 식민도시화 과정
- 식민지 조선 최대의 군사기지로써 용산을 통합한 표주박형(땅콩형) 이중도시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- 기존 한성의 도시구조-유교적 상징도시, 계획도시. 신분별 주거공간 분할
  - 경복궁과 창덕궁, 종묘와 사직 주변  
북촌 양반 관료 권력자 거주지역
  - 종로, 청계천 이남 남촌  
기술직 관리, 아전, 중인, 상인 거주
  - 마포 일대 한강변 객주, 상인, 어민 거주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- 개항 이후 외국인의 도성 거주
  -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국인에게만 서울 거주 및 도성 내 상업 행위 허락
  - 1884년 영국의 최혜국 요구에 따라 각국과 동일한 조약 개정으로 외국인의 성내 거주 합법화
  - 1885년부터 도성내 남촌에 일본인 거류지 형성(일본공사관 주변 남산 북록 진고개)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- 청일전쟁 승리 후 남대문통 대로변의 청국인들을 몰아내고 진출. 미츠코시 백화점(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점)
- 러일전쟁 이후 현재의 충무로~용산까지 서울의 남부 전체 장악
- 1905년 경부철도 개통 이후 개항장 도시 부산, 인천 등에서 한성으로 일본인 이주 급증





# 1. 식민도시 경성의 형성과정

- 러일전쟁 승리 후 일본에서 한반도로 이주민 폭발적 증가
  - 1905년 재조 일본인 42,060명->1906년 83,315명(\*김백영, 지배와 공간-식민지도 시 경성과 제국 일본, 문학과지성사, 284쪽)
  - 1910년 171,543명(+4년간 88,228명, 연평균 22,000명 이주)



## 2. 일본형 식민도시의 이식

- 조선총독부 신청사(1916~1926) 건립
  - 식민지 총독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을 왕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훼손하고 건립. 식민 권력에 의한 도시공간 재편.
- 조선신궁(남산)의 건립(1918~1925)
  -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, 메이지천황 제신 선정
- 경성부청사(1924~1926;서울시청) 건립



## 2. 일본형 식민도시의 이식

- 전통 도시 공간의 재편
  - 창경원의 개방과 공원화
  - 경희궁은 일본인 거류민 학교 건립
  - 경복궁은 1915년 병합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장소화. 조선총독부 신청사 신축, 조선총독부박물관 건립.
- 식민도시 공간의 기능적 분화
  - 경제중심(본정), 군사중심(용산), 정치중심(광화문), 경성제대(동숭동)



## 2. 일본형 식민도시의 이식

- 북촌(조선인)-남촌(일본인) 분리
- 경복궁에 총독부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북촌 지역으로 일본인 진출
- 경복궁 뒤편에 총독 관저(현재의 청와대) 건축
- 대경성(Great Keijo) 계획의 실현으로 1936년 청량리, 마포, 영등포 일대를 포함. 경성부의 면적 3.5배 확대.
- 인구 65만. 도쿄, 오사카, 나고야, 고베, 요코하마, 교토에 이은 일본 제국의 7대 도시화





## 2. 일본형 식민도시의 이식

- 1920~30년대 경성의 자본주의적 변화
  - 백화점, 상가, 호텔, 극장, 카페 등 근대 건물  
의 신축과 소비공간화
  - 일본인 본거지인 진고개 중심의 혼마치(本町)는 소비문화의 중심지이자 문명의 공간
  - 미츠코시, 히라다, 미나카이, 조지야 백화점  
vs 조선인의 화신백화점(종로)

Cf. 경성부민 대다수는 절대 빈곤층. 경성부 조선인 60%는 무납세자(무소득, 무소유자). 1928년 현재 17000호 10만명이 극빈자+전국 각지 농촌에서 이주민



# 미츠코시 백화점



# 종로 화신백화점(by 박흥식)

